

創世・始祖神話考

— 물의 이미지를 中心으로 —

邊 泰 又*

目 次

- | | |
|---------------------|--------------|
| I. 머릿말 | 2. 물의 豐饒性 |
| II. 神話의 概觀 | 3. 물의 淨化力 |
| III. 神話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 IV. 古代人의 世界觀 |
| 1. 물의 生産力 | V. 맺음말 |

I. 머릿말

우리 民族은 예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며 풍부한 삶을 누려왔다. 흔히 어린 시절하면 화룻가에 웅기종기 둘러앉아 밤을 구워 먹으면서 할머니 얘 기 듣는 광경을 연상하리만치 우리 민족은 이처럼 많은 이야기를 벗 삼으면서 성장해 온 것이다. 특히 우리 民族은 이러한 이야기 속에 그들의 內面的 生活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것이 傳承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 口碑文學이란 장 르를 탄생시켰다.

口碑文學에는 說話, 民謠, 巫歌, 판소리, 民俗劇, 俗談, 수수께끼 등이 있는데, 說話는 다시 神話, 傳說, 民譚 등으로 나뉜다. 說話의 하위 개념인 神話는

*四年

人類의 想像力에 의해 自然이나 社會現象의 起源과 秩序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神話에는 알게 모르게 人類의 意識이 投影되어진다 하겠다. 그리고 또한 神話에는 그들의 광범위한 生活이 反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思考力, 想像力, 論理的 推理力, 言語를 통한 形象力이 광범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¹⁾ 神話를 통해 古代人들의 思考를 여실히 캐 수 있게 된다.

本稿에서는 우리 나라의 創世·始祖神話를 고찰하려 하는 바 創世神話는 開闢神話인 濟州島의 ‘천지왕 본풀이’를 대상으로 삼고, 始祖神話는 三國遺事에 所載된 建國神話와 三姓神話를 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원래 神話는 그 神聖性이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建國神話, 始祖神話, 部落神話 등으로 나뉘는데 우리 나라의 建國神話는 王家의 始祖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始祖神話의 의미도 지닌다 하겠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始祖神話를 建國神話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려 한다. 여기에서 筆者는 神話에 나타나는 물의 여러 이미지를 추적하는 동시에 우리 先祖들이 世界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II. 神話의 概觀

神話의 屬性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神聖性이다. 張德順 教授는 神話를 神에 관한 이야기, 自然現象이나 社會現象의 起源과 秩序를 說明하는 이야기, 神聖視되는 이야기로 구분했다.²⁾ 첫째로 神話가 神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 나라의 神話에는 神과 人間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서 이는 妥當치 않고, 둘째로 原因論的 이야기인데 이는 우리 민담 중에서 하늘로 올라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나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바치던 일곱 아들이 죽어서 北斗七星이 된 原因論的 이야기들이 있기에 이 또한 마땅치 않다. 마지막으로 神話의 屬性 중 神聖性은 神話 固有의 領域이어서 타당한 定義라 할 수 있다. 즉 神話에서 神聖性이 제거되어버리면 神話는 傳說이나 民譚으로 化하기 때문에 神話가 “神聖視되는 이야기”라는 주장은 보편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神話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傳說이나 民譚과 같은 性格을 지니고 있지만, 傳說이

1) 李秉岐·白鐵,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82.

2)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84, p. 29.

나 民譚과는 달리 神聖視되는 이야기라는 데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神話의 神聖性은 古代의 呪術, 宗教的 祭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다.³⁾ 즉 神話의 神聖性은 오직 祭儀에 의해서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祭儀를 중시하는 학파에 祭儀學派(ritual school)가 있다. 祭儀學派는 James Frazer에 기원을 두고 Jane Harrison 등에 의하여 확립되었다. 이들에 의하면 神話는 祭儀 특히 豐饒祭(fertility rite)나 成年式(initiation ceremony)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던 것을 말로 옮긴 祭儀의 口述相關物(oral correlative)이라고 한다.⁴⁾ 즉 神話는 祭儀에서 불려진 것이거나 이로부터 출발한 것인데 이에는 儀禮先行說과 神話先行說이 있다. 의례선행설은 儀禮가 있고 나서 그 의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神話가 나왔다는 주장이고, 神話先行說은 신화의 의미가 불분명해지자 神話의 機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의례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神話의 내용을 儀禮가 구체화시켜 주고 儀禮行事를 神話가 보충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흔히 神話라 하면 文獻에 수록된 文獻神話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神話의 眞面目을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巫儀에서 구송되는 神話, 즉 본풀이⁵⁾라 하겠다. 본풀이는 神의 根本來歷譚으로 神의 出生에서부터 神으로서의 職能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을 풀이하는 것이다. 이 본풀이는 오늘날 우리의 神話이며 巫歌로서 그 길이와 文學性에 있어서 일반적인 他說話나 民譚보다도 훨씬 고차적이고 생생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 濟州島의 본풀이는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生活의 反映으로서 공동 유일의 祭儀이며 文學이며 科學이 된다.⁶⁾

한 民族의 神話는 그 민족의 유구한 생활에서 피어난 生活感情을 제시해 준다. 그러므로 神話는 한 민족의 영원한 생활의 표현이며, 또한 그것은 그대로 한 민족의 斷面을 말하는 것이 된다.⁷⁾

3) 玄容駿, “古代神話와 韓國文學의 源流”, (趙東一外,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p. 84.

4) 金烈圭外, 「民談學概論」, 一潮閣, 1982.

5) 본풀이는 濟州島에서 무당이 굿을 할 때 神을 향해서 하는 무당의 기도임과 동시에 神의 來歷譚이며, 오늘날 濟州島의 본풀이는 그 數와 內容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살아 숨쉬는 神話라 할 수 있다.

6) 秦聖麒, 「耽羅의 神話」, 平凡社, 1980, p. 121.

7) 秦聖麒, 前掲書, p. 14.

神話는 神을 出現시키는 機能 뿐만 아니라 儀禮의 正當性과 祈求事項의 成就를 보증하는 기능이 있다.⁸⁾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社會統制의 機能이다. Malinowski에 의하면 “神話는 風俗을 고정시키고, 行爲의 模範을 설정하고, 어떤 制度에 위엄과 중요성을 부여하는 規範의인 힘을 가진다”⁹⁾고 한다. 또한 神話는 그 神話를 享有하는 民族으로 하여금 同一한 意識을 갖게 하여 團結하게 만든다. 비근한 예를 우리는 檀君神話에서 볼 수 있다. 檀君神話는 우리 民族이 難局에 처해 있을 때 한층 더 빛을 받았다. 일제시대에 선각자들은 檀君神話를 이용해 우리가 한 祖上에서 갈려 나온 單一民族임을 강조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團結하게끔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신화에는 團結의 機能도 있는 것이다.

神話의 主題는 크게 宇宙起源神話, 人類起源神話, 文化起源神話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宇宙起源神話는 宇宙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로 創造型과 進化型이 있다. 創造型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여호와가 萬物을 창조한 天地創造神話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天地分離神話로 제주도의 ‘천지왕 본풀이’, ‘天父神 랑기’와 ‘地母神 파파’가 서로 포웅했다가 떨어져면서 世界를 창조했다는 神話 등이 있다. 그리고 進化型은 創造神의 개입 없이 原初的 物質 또는 胚素에서 宇宙가 자발적으로 발달했다¹⁰⁾고 하는 형식으로, 앞에서 나온 盤固가 죽어 그 身體의 일부가 自然으로 되었다는 中國의 盤固神話가 이에 속한다.

人類起源神話는 우주기원신화의 일부분으로 전 인류의 기원보다도 특정한 민족의 기원을 얘기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도 역시 創造型과 進化型으로 나뉜다. 創造型의 예로는 創世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내용과 아프리카 부족의 신화 중에서도 神이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듯이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대목이 있다.¹¹⁾ 進化型에는 식물에서 人類가 나왔

8) 玄容駿, “濟州島 巫俗儀禮研究”, 濟州大論文集 7輯.

9) 張德順 外, 「口碑文學概說」, (B. Malinowski: “In Tewara and Sanara—Mythology of the Kula”), 一潮閣, 1984. p.42에서 再引.

10) 全圭泰, 「韓國神話와 原初意識」, 二友出版社, 1980.

11) John S. Mbiti: 鄭鎮弘 譯, 「아프리카 宗教와 哲學」, 現代思想社, 1979.

다는 이야기, 卵生(朱蒙·赫居世等), 地中出現(三姓神話), 天降, 獸祖(오랑캐 이야기) 神話 등이 있다.

文化起源神話에는 神이 특정한 文化財를 발명한 이야기나 불의 사용, 식물 경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우리 建國神話의 類型을 구분한 업적은 몇 안 되지만¹²⁾ 지금까지 있어 온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① 天上降臨型

이 型은 하늘로부터 神이 내려와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분포이나, 南部地方보다는 북부지방에 많이 나타난다. 天上降臨型의 유형을 보면 桓雄이나 解慕漱처럼 人間의 몸으로 직접 내려오는 北方의 형태와 천상에서 내려온 알(卵 또는 匏) 속에서 嬰兒를 탄생시키는 赫居世와 首露의 南方形態가 있다.

② 海上漂流型

이 형태는 바다를 통해 외부 세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脫解神話, 許王后, 三姓神話 등이 있다.

③ 卵生型

이 型은 天上降臨型의 일부로 南部에 많이 나타나며(朱蒙·赫居世·首露王·脫解·闕智), 오세아니아, 東南亞, 印度 등지에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汎世界的인 形態라 하겠다.

④ 地中湧出型

地中湧出型의 神話는 三姓神話에서만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실로 특유한 형태이다.

⑤ 獸祖型

12) 趙芝薰, “東方開國說話考, 建國神話의 類型과 모티프에 대한 研究”, (李相伯博士, 回甲紀念論文叢, 乙酉文化社, 1964).

三品彰英, “建國神話論考”, 三品彰英論文集, 東京, 平凡社, 1970-74.

이 형태는 遊牧民族에 많이 나타나서 totem의 결과로 보아지는데 우리 神話에는 檀君神話의 熊女밖에 없다.

이상 미비하나마 走馬看山格으로 建國神話의 類型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의 建國神話는 전부 이 틀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간혹 특이한 형태의 神話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모두가 이 유형의 하위개념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아진다.

Ⅲ. 神話에 나타난 물의 이미지

前記한 바와 같이 우리 建國神話의 類型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특히 海上漂流型이 있어서 우리 神話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알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人類의 思考의 結晶體인 神話에 우리 先人들의 生活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Thales에 의하면 萬物은 물로부터 이루어지고 變化하여 또 다시 물로 돌아간다고 한다. 물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에 이르면 “모든 液體는 물이며, 물은 것이다”로 변화한다. 또한 물은 젖과 유사한 이미지인 精液의 성격도 지닌다. 물이 이 두가지 성격을 구비했을 때 비로소 물로서의 완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精液의 屬性으로 生産力을 지니고, 젖의 이미지로 豐饒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물은 創造의 神秘(탄생·죽음·부활), 淨化와 罪, 豐饒와 成長의 이미지를 지니는 것이다. Carl Jung은 또한 물을 無意識의 가장 일반적인 象徴으로 보기도 한다. 물은 바다와 강을 포함하는데, 바다는 모든 生命의 어머니이고 靈魂의 神秘와 無限性을 지니는 동시에 죽음과 再生을 내포하며, 江도 역시 죽음과 洗禮를 통한 再生을 선사하며 시간의 영원한 흐름의 이미지를 지니기도 한다.¹³⁾ 이러한 속성을 지닌 물이 우리 神話에서는 어떠한 形式과 機能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3) 윌프레드 L. 케린 外: 鄭在浣, 金聖坤 共譯, 「文學의 理解와 批評」, 靑鹿出版社, 1981.

1. 물의 生産力

바다나 물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母性的 象徴 가운데 가장 크고 변하지 않는 것의 하나인데, 그 母性的 象徴은 물의 生産力에 의한 때문이다. 물이 生産力을 지닌다는 것은 古代 어느 民族에게나 共通되었던 것으로, 인도네시아의 한 神話에 어느 女人이 손과 발이 없는 둥근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칼로 두 동강을 내어 하나는 江의 源泉에, 다른 하나는 江 下流에 내던져 그것이 人間으로 化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江의 源泉은 男性的 生殖器를 江 下流은 女性的 子宮의 象徴으로 볼 수 있다.¹⁴⁾ 아프리카 바나르완다의 可姪期 여인들은 母胎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神이라 생각하여 잠자리에 들기 전에 神이 아기를 낳는 데 사용하도록 물을 떠 놓는데¹⁵⁾ 이 물 또한 물의 生産의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人間을 비롯한 모든 陸上動物은 물에서부터 進化해 왔는데, 그것은 人間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에 둘러 싸여 물 속에서 생활하다가 出生한다는 사실이 입증한다. 이렇게 물에서부터 出發한 人間은 물 밖에 나가서도 항상 물을 그리워 하게 된다.

古朝鮮 때 霍理子高의 아내 麗玉이 불렀다는 「公無渡河歌」의 白首狂夫가 물에 빠져 죽는 행위는 일종의 原初的인 生命의 源泉인 母胎에 回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reud는 꿈을 性的인 의미와 관련시켜 해석하는데 꿈 속에서는 出生이 으레히 물과의 관계로 표시되고, 물에 빠지는 것은 生産을 의미한다. 그래서 白首狂夫의 익사 자살은 母胎·回歸의 欲望이라 할 수 있다.¹⁶⁾ 그러므로 물 속에서의 죽음은 死者로서 가장 母性的인 것으로의 還元일 듯하다.

古人들은 性行爲와 出產의 因果關係를 모르는 것 같다. Malinowski는 “母系制의 원시인들은 어린이는 조그마한 精靈으로 母의 子宮에 들어가 妊娠되어

14) 全圭泰, 前掲書, p.174.

15) John S. Mbiti. 前掲書.

16) 全圭泰, 前掲書, p.190.

出産되는데 이는 精靈의 도움이지 生理學的으로 아버지의 役割은 없었다”¹⁷⁾고 했다. 이러한 고대인의 의식은 人間이 大地에서 나왔다고 하는 생각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즉 Polynesia에서는 不妊女性이 임신하고 싶을 때 땅 위에 눕는다.¹⁸⁾ 그리고 코에포리(Choepori)에서 아에스킬로스는 大地는 모든 것을 낳고 기르고 다시 그 子宮 속에 받아들이는 杼라고 찬미했다. 또한 古代人들은 性행위를 농사짓는 일과 동일시하여 땅을 女性生殖器로 보고 種子를 精液과 동일시하기도 한다.¹⁹⁾

미나하사(Minahasa) 신화에는 원초의 海洋인 물의 세계에서 ‘알(卵) 모양의 물거품이 나오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알’의 生成 觀념으로 ‘水界에서 출현되는 알’ 및 인조의 ‘卵生’이라는 점이 이 설화의 요점이다. 또한 아드미랄의 군도(Admiralty) 신화에서는 ‘알’의 어미로서 특정한 여자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여자 몸에서 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피(血)가 알로 化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핏방울을 ‘이가이’의 곡(穀) 속에 넣어 두었다는 대목은 이가이의 곡이 女陰의 象徴이라는 점에서 女子로부터의 出産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²⁰⁾

한편 물의 生産의인 이미지는 開闢神話인 濟州島의 천지왕 본풀이에 여실히 나타난다.

태초에 천지는 混沌으로 되어 있었다. ……이 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땅 덩어리에는 산이 솟아오르고 물이 흘러내리곤 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는 점점 분명해져 갔다. 이 때, 하늘에서 청(靑)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흑이슬(또는 물이슬)이 솟아나, 서로 合水되어 陰陽相通으로 萬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²¹⁾

이 神話에서 우리는 하늘의 청이슬과 땅에서 솟아나는 흑이슬이 合水되어 萬物이 생겨난다는 구절을 통해 人間の 生殖原理를 엿볼 수 있다. 하늘에서 내리

17) Malinowski B. K: 韓完相 譯, 「未開社會의 性과 抑壓」, 三省出版社, 1976, pp. 23-24.

18) M. Eliade: 鄭鎮弘 譯, 「宇宙와 歷史」, 現代思想社, 1976, p. 44.

19) M. Eliade: 李東夏 譯, 「聖과 俗」, 학민사, 1983.

20) 全圭泰, 前掲書, pp. 168-169.

21) 玄容駿, 「濟州島神話」, 瑞文堂, 1976.

는 이슬(液體)과 땅에서 솟은 액체가 합해져 만물이 탄생한다는 설명은 人間의 性行爲와 誕生의 原理를 반영시킨 표현이라 보이며, 따라서 하늘을 男性=아버지, 땅을 女性=어머니로 관념하는 사상이 엿보인다.²²⁾ 하늘과 땅의 이슬이 합쳐진다는 것은 바로 陰陽思想의 表現이라할 수 있는데, 「淮南子」에서는 물을 萬物 始生의 母胎로 보기도 한다.

…始於虛窳 虛窳生宇宙 宇宙生氣 有氣漢垠 清陽者薄靡而爲天 重濁者凝滯而爲地…….

宇宙에 氣가 생겨서 맑고 가벼운 것이 하늘이 되고 무겁고 흐린 것은 엉키어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 또한 陰陽의 結合에서 宇宙가 나왔다고하는 神話인 것이다. 原始的 創造神話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源水思想인데 源水觀은 바다, 우물, 하천 등의 生命水, 復活水 등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源泉水는 生命을 양육하고 모든 河川에 生命의 물을 공급하는 生命의 源川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 水神, 女神, 龍神思想이었다.²³⁾

…金蛙嗣位 于時得一女子於太伯山南優渤水 問之 云我是河伯之女 名柳花 與諸弟出遊 時有一男子 自言天帝子解慕漱 誘我於熊神山下鴨渚邊室中知之 而往不返 …行至淹水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日逃遁 追者垂及 奈何 於是魚鼈成橋 得渡而橋解 追騎不得渡…²⁴⁾

이상의 朱蒙神話에서 河伯의 딸인 柳花와 天神인 解慕漱의 결합으로 朱蒙이 탄생함을 볼 수 있다. 즉 여기에서 물의 生産力이 드러난 셈이다. 天과 地의 和合, 陰陽의 結合에서 朱蒙이 태어난 것이다.

한편 金蛙王에게 쫓기던 朱蒙이 淹水에 이르러 水神에게 고향 물고기와 자라들로 하여금 다리를 만들게 하여 건너는 대목에서 우리는 물의 保護的 側面까지도 보게 된다. 金蛙泰氏는 ‘엄’은 신성하다는 뜻을 지닌 ‘검’, ‘곰’, ‘금’이

22) 玄容駿, “濟州島神話와 開闢神話” <1> 濟州島 52號, 1971.

23) 民族文化研究所 編, 「三國遺事研究」 <上>, 嶺南大學校出版部, 1983, p.192.

24) 李民樹 譯, 「三國遺事」, 乙酉文化社, 1975. 以下에서 引用하는 原文은 同書에 의한 것임을 밝혀 둠.

‘암(雌·芽·암컷)’, ‘엄(母·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따라서 ‘엄’은 生命의 源泉인 어머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朱蒙이 救함을 받게 되었다는 추측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朱蒙은 淹水를 건너기 전에는 미천한 신분이었다가 물을 건넌 후에 王으로 변신하는 것으로 보아 물이 入社式의 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例는 濟州島의 巫俗神話 본풀이에 허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삼승할망 본풀이’에서 죽을 뻔한 동해용왕 따님이 물을 건너 육지에 도착해 坐佛王이 되었고, ‘이공본풀이’에서도 장자에게 위해를 받던 할락궁이도 물을 넘어서서 아버지를 만나 힘을 얻어 죽은 어머니를 살린다.

이처럼 朱蒙이나 濟州島의 神들은 ‘물건넘’의 儀式(入社式)을 통해서 하나의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移行되어 존재론적·사회적 신분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原始人 사회에서는 思春期 少女, 또는 첫번째 月經이 온 소녀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고 그 기간이 지나면 成人 자격을 주어 결혼하게 한다. 즉 通過祭儀(또는 入社式)을 통해 어린 아이에서 어른의 世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入社式은 어두운 굴 속에서 썩과 마늘로 “不見日光百日”의 시련을 거쳐 곰이 성숙한 한 여인으로 化했다는 檀君神話의 熊女에게도 적용된다. 熊女는 子宮의 상징인 굴 속에 들어가 母胎로 회귀하여 상징적인 죽음을 거쳐 화려한 모습으로 變身한 것이다. 熊女는 사람으로의 變身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桓雄과 결합하여 檀君을 誕生시킴으로써 入社式의 의의를 한층 더했다.

檀君神話에서 굴의 入社 기능을 보았거니와, 赫居世神話의 蘿井, 關英井 등에서는 더욱 생생한 入社, 生産性を 볼 수 있다. 굴에 들어갔던 熊女는 桓雄과의 결합을 통해서 檀君을 탄생시키는 生産性を 보여 주었지만 赫居世神話의 우물은 굴과는 달리 물이 고여 있어 子宮과 더욱 유사해 여타의 作用 없이도 스스로 生産力을 나타낼 수 있다.

…楊山下蘿井傍 異氣如電光垂地……有一紫卵……剖其卵得童男……沙梁里關英井邊 有雞龍現而左脇誕生童女……

以上에서도 赫居世나 關英이 직접 물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誕生이 물과 연관되어 이 또한 물의 生産力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물의 生産性이 가장 생생하게 나타난 이야기에 女人國傳說이 있다. 곧 男子가 없는 女人國에서는

女人들이 아이를 배고 싶을 때 어느 특정한 우물을 보거나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된다. 赫居世神話에서도 生産力의 要素로 우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赫居世가 앞에 둘러싸인 채 우물가에 있었던 것이나 關英이 물의 神인 雞龍에 의해 탄생되는 장면이다. 즉 蘿井·關英井은 물을 生成의 母胎로 생각한 源水思想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童女의 이름이 우물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곧 龍과 함께 물이 神聖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컨대 龍은 물을 다스리는 神으로서 風雲造化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治水能力이 있어 우리 民族과 같은 農耕民에 있어서는 絶對的인 神이기도 하다. 治水能力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키우고 수확을 거두게 하므로 原初的인 물의 生産力을 나타낸다 하겠다.

거북도 마찬가지로 龍과 함께 물과 관련이 깊은 동물이다. 거북의 머리는 男根을 상징하여 목의 자유로운 出入은 性交와 연결되며, 龜旨歌에서 거북의 머리를 구워서 먹겠다(燔灼喫)라는 것은 古代人들의 세찬 性的 欲望이 내포된 소박한 표현인 것이다.²⁵⁾

물의 生産的인 모습은 물의 變身인 龍에 반영되어 武王과 甄萱說話에 나타난다. 이는 異物交媾라 할 수 있는 것으로 武王說話에서는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과 같이 나타난다. 그리고 甄萱說話는 異物交媾 說話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昔一富人居光州北村 有一女子 …每有一紫衣男到寢交媾 …針刺於 大蚯蚓之腰後因妊生一男…

여기에서는 龍이 아닌 지렁이가 나타나는데 지렁이는 龍의 변형이고, 오늘 날에도 지렁이를 土龍이라 부르는 점으로 보아 지렁이는 龍이 변한 것임을 확실히 알겠다. 지렁이도 龍과 같이 물(또는 습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예컨대 龍이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든 지렁이로 나타나든 간에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모두가 물의 변형임을 알 수 있겠다.

이상에서 물의 生産性을 살펴보았는데 生産 다음에는 반드시 成長-豐饒의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여기에서는 이 단계에 따라 물의 豐饒性에 대해 考察해 보기로 한다.

25) 全圭泰, 前掲書, p.168.

2. 물의 豐饒性

해변을 둥글게 하면서 끊임없이 쓰다듬는 애무에 의해 바다는 母性的인 윤곽, 그리고 아이가 그토록 부드러움과 안전함과 따스함과 休息을 강하게 느끼는, 女性的 乳房의 눈에 보이는 愛情을 해변에 쏟고 있는 것이다.²⁶⁾ 이러한 능력을 지닌 바다는 母性的의 性格을 지녀 만물을 키워내는 것이 되며 따라서 만물에 豐饒로움을 제공하는 役割을 하는 것이다.

檀君神話에서 보는 바와 같이 桓雄이 거느리고 온 風伯·雨師·雲師들은 呼風喚雨하는 能力을 지녀 農耕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즉 적당하게 비를 내려 豐作을 이루게 하는 豐饒의 神인 것이다. 그리고 바다 건너 멀리 阿踰陀國에서 人間生活과 국가건설에 소중한 錦繡綾羅와 衣裳疋緞·金銀珠玉과 구슬로 만든 많은 寶物들을 가져 온 首露王神話의 許王后도 富貴와 豐饒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濟州島의 三姓神話에는 땅에서 솟아난 三神人이 지친 들에서 사냥을 해서 가져오는 肉을 해 입고 고기를 먹으며(遊獵荒僻 皮衣肉食) 살다가 바다에서 온 세 사람의 青衣處女를 맞이하여 사는 場面이 있다. 그런데 이 처녀들은 울 적에 오곡의 종자와 육축을 가지고 와서 이로 말미암아 濟州는 豐饒로운 삶을 누리게 됐다. 이에서 물의 豐饒性은 직접 물이 이루어 주지는 않지만 물을 媒介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이 또한 豐饒性을 지닌다 할 수 있다.

3. 물의 淨化力

Eliade에 따르면 물은 淨化, 건강 등의 기능을 지녀 分解하고 형태를 파괴하며 罪를 씻어 보내기 때문에 淨化와 再生을 동시에 행한다고 한다.²⁷⁾ 이러한 기능은 기독교의 洗禮儀式에 포함되어 모범적인 모형을 보여 준다. 人間은 물에 의한 洗禮를 받음으로써 새로 갱생된 存在로 태어난다. 이 경우에 人間은 물에 잠김으로써 지금까지 지었던 罪가 소멸되어 완전히 淨化된 人間으로 化한

26) Gaston Bachelard: 李嘉林 譯, 「물과 꿈」, 文藝出版社, 1980, p.170.

27) M. Eliade: 李東夏 譯, 前掲書, p.101.

다. 우리는 다시 어느 한 부족의 處女水葬儀式에서 물의 淨化力을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오래 계속되는 가뭄 때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아홉 명의 젊은 處女들이 크뤼안느 샘물 속에 들어가 완전히 그것을 텅비게 만든다. 水葬儀式은 여기서 純潔한 사람들에 의해 샘물의 淨化를 동반하고 있다. 샘물 속으로 내려가는 젊은 아가씨들은 處女이다.²⁸⁾

아프리카 은테벌레族의 成年式에서는 물이 淨化力과 通過祭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즉 男子 아이의 경우 최초로 夢精하면 다음날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 강에 가서 몸을 씻고 숲 속으로 달아나 2·3일 간 머문다. 여기에서 숲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죽음과 부활'의 관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자 아이의 경우 첫번째 月經을 한 다음에는 오랫동안 찬물에서 몸을 씻게 해서 며칠이 지나면 결혼할 자격을 준다. 곧 幼兒期를 단절하는 행위는 몸을 물로 씻음으로써 극화된다. 이 祭儀的인 목욕은 동시에 비생산적인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보다 깊은 宗教的 淨化의 의미도 지닌다.

우리 始祖神話에서 물의 淨化力은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다. 먼저 赫居世神話에서

…剖其卵得童男……俗(浴)於東泉 身生光彩……有雞龍現而左脇誕生童女 姿容殊麗 然而唇以似雞觜 將浴於月城北川 其觜醜落…

의 구절이 나온다. 東泉에 목욕을 시킴으로써 赫居世의 몸에서 光彩가 나서 짐승들이 따르고 해와 달이 밝아졌다는 것 등은 확실히 물의 淨化力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關英의 입술에 불순하게 붙어 있던 닭부리도 北川의 물에 씻음으로써 깨끗이 떨어졌다. 이러한 물의 淨化力은 脫解王에게로 넘어오면 懲戒의 차원에까지 이르게 된다.

…一日吐解王登東岳 廻程次 令白衣索水飲之 白衣沒水 中路先嘗而進 其角盃貼於口不解 因而嘔之……然後而解

脫解王의 이야기에서는 심부름꾼이 먼저 물을 마시려 하자 징계를 내려 물

28) Gaston Bachelard, 前掲書, p.185.

그릇이 입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했다. 이러한 물의 정제력은 淨化에 이어져 물의 淨化力을 한층 빛내 주었다. 즉 정제를 내리고 나서 잘못을 고쳐주므로 한층 효과적인 淨化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의 정제는 淨化力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Bachelard는 물을 '부드러운 물'과 '난폭한 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에 의하면 '부드러운 물'은 原初的이고 絕對的이며 想像力이나 無意識에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반면에, '난폭한 물'은 人間的 意志力에 대한 敵 또는 대립자로 나타난다고 했다. 즉 그것은 무엇인가를 征服하고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력에 대한 방해물이며 도전자인 것이다.²⁹⁾ 구약시대에 온 大地를 덮쳐 생물을 殄滅시킨 노아의 홍수가 그 例이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없애기 위해 물로써 정제를 내린 대표적 例이다. 곧 대지 위에 거하는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림으로써 더욱 정결한 生物이 나올 수 있도록 터를 닦아 놓은 것이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에서의 물은 解脫王의 물보다 한 차원 높은 경지에서 정제하고 淨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IV. 古代人의 世界觀

이 世界는 時間과 空間으로 이루어져 있다. 時間은 과거·현재·미래로 구성되는데 神話는 그 時間의 구조상 太初에 일어난 原初的인 사건을 얘기한다. 즉 儀禮가 포함된 神話를 話說할 때 世俗的인 人間은³⁾ 太初의 時間을 회복하여 결함이 없는 宗教的인 人間이 된다.

우리 民譚에서는 가끔씩 時間的인 개념이 포함된 이야기들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佛敎의 輪廻思想의 영향이라 보아진다. 즉 前生(過去)에서 現世로 이어지고 來世에서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의식이 우리 先人들의 時間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神話에서는 時間에 대한 개념이 그리 선명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筆者는 時間的인 측면보다는 空間觀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29) Gaston Bachelard, 前掲書, pp.284-285.

30) 이 用語는 Eliade에 의한 것이다. 즉 世俗的인 人間은 世界의 성스러움을 부정하고 모든 종교적 전제를 배제한 世俗的인 經驗만을 받아들이는 부류임에 반해, 宗教的인 人間은 世界를 聖化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다.

먼저 古人들의 저승觀을 살펴보자. 新羅의 月明師가 죽은 누이를 위해 제사를 지낼 적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紙錢을 서쪽으로 날려 버렸다는 기록이 三國遺事에 전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葬禮 때 亡者가 저승에 가서 쓰기 위한 紙錢과 옷을 사르기도 하며 저승길을 갈 때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짚신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 두 경우를 보더라도 분명히 저승은 이승과 斷絶된 世界가 아니며, 또한 저승의 삶도 이승의 삶의 연장이라는 사고방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思考는 우리 先祖들의 現實論的 思考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秦聖麒氏에 의하면 이 世界는 天上界, 地上界 그리고 地下界와 海洋界로 나누어지는데, 天上界는 옥황상제와 善神이 계신 곳이며, 地上界는 온 人類와 物類가 사는 곳이며, 地下界와 海洋界는 惡神이 거하는 곳인데, 사람은 이승의 생활 태도 여하에 따라서 死後에 극락에도 가고 또 지옥에도 간다는 것이다.³¹⁾ 이에서 우리는 水平的 世界認識과 垂直的 世界認識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즉 바다와 땅의 인식에서 水平的 世界觀이, 하늘과 땅, 지하와 지상에서 垂直的 世界觀이 나온다.

再生說話에 水平的 世界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亡者가 저승을 向해 한참 건다보면 앞을 가로막는 물이 나와서 그 물을 지나면 저승이 나타난다. 民間에서 亡者를 위해 짚신을 만들어 주는 의식은 저승이 現世인 이승과 水平的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垂直的 世界觀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먼저 巫俗에서 굿을 할 때 대를 새우는데 그 대는 神이 降臨하는 媒體인 통로가 된다. ‘천지왕 본풀이’에서도 천지왕이 地上의 총맹부인과 짝을 맺고자 地上으로 내려오고, 대별왕 소별왕 兄弟가 박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 또한 하늘이 위에 있다고 보는 垂直的 世界觀의 결과이다. 요건대 하늘(저승)이 위에 있기 때문에 地上과 天上과의 교섭은 기둥·사다리·산·나무·덩굴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나무에 의한 天上과 地上의 교섭은 世上을 다스리고자 神檀樹 밑으로 桓雄이 下降하는 檀君神話에서 그 例를 찾을 수 있다. 赫居世神話에서는 白馬가 나타나 하늘과 땅 사이를 垂直往來하며, 閔智神話에서도 紫雲이 하늘로부터 땅에 垂直으로 드리워지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또한 垂直的 世界觀의 一斷面이라 할

31) 秦聖麒, 前掲書.

수 있다. 요컨대 天上降臨型과 地中湧出型神話는 모두가 垂直的 世界觀에 基
 因한 神話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先祖들에 있어서 하늘(저승)은 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이 支配的이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神話는 비록 사실의 설명이 아닐지라도 人間 想像力의 結果이기 때문에 神話
 에서 古代人들의 思考方式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우리 建國神話에 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 先祖들의 生活이 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
 이다. 筆者는 이 점에 주목하여 本稿를 전개시켜 왔다.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바를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은 그 본질상 生産性, 豐饒性, 淨化力을 지닌다. 生産性을 지님으로써 물
 은 萬物 生成의 기초가 되어 물로의 침수내지 溺死는 母胎에로의 回歸라는 사
 고까지도 낳게 되었다. 물은 그 형태가 固定되지 않고 龍·거북·물고기·지
 렁이 등으로 변형되어 生産力을 한층 의미있게 해 준다. '물은 젖'이라는 생각
 은 誕生된 것에 계속적으로 영양을 공급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함으로써 물
 의 豐饒性을 나타낸다. 또한 물은 生産力뿐만 아니라 그것을 成長시키는 기능
 까지도 가져서 물을 통한 入社式을 거쳐 한 存在가 潤부신 變身을 하는 데 절
 대적인 기능을 한다. 물의 이미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生産力이
 고 그 다음이 淨化力인 것 같다. 淨化力은 정계력까지도 함께 지녀 그 이미지를
 드높여 주는데 赫居世神話에서 淨化力, 脫解神話에서의 徵戒를 통한 淨化
 力, 그리고 노아의 洪水에서 그러한 例를 찾을 수 있다.

神話에서 古代人의 世界觀을 고찰해 보면 時間的인 인식은 그리 흔하지 않
 고, 空間的 側面에서는 水平的인 世界觀보다 垂直的 世界觀이 더 많이 나타나
 고 있다.

以上에서 물의 이미지를 檀君神話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論理에 맞지 않
 는 牽強附會의인 부분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筆者의 能力不足이라 여기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補完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金烈圭 外，「民談學概論」，一潮閣，1982。
- 民族文化研所 編，「三國遺事研究」〈上〉，嶺南大學校出版部，1983。
- 張德順 外，「口碑文學概說」，一潮閣，1984。
- 張德順，「說話文學概說」，二友出版社，1980。
- 秦聖麒，「耽羅의 神話」，平凡社，1980。
- Caston Bachelard：李嘉林 譯，「물과 꿈」，文藝出版社，1980。
- John S. Mbiti：鄭鎮弘 譯，「아프리카宗教와 哲學」，現代思想社，1979。
- M. Eliade：李東夏 譯，「聖과 俗」，학민사，1983。
- M. Eliade：鄭鎮弘 譯，「宇宙와 歷史」，現代思想社，1976。